

농산어촌지역 교육의 특성과 문제점 분석 - 세 학교에 대한 문화기술적 접근 -*

An Ethnography on Educational Activities of Three Middle Schools in Rural Area

이두휴**

Doo Hyoo Lee

Abstract

This paper was to study characteristics of school types based on classification of rural areas. This study tried to provide basic data for implementing the development of rural education policy for the community unit by classifying and analyzing administrative districts. For the purpose, the researcher carried out literature reviews and selected three schools considering the gaps in size and location of rural community. The researcher interviewed teachers and parents, to gather information about rural education, and conducted participant observation on educational activities.

As a result, this study showed each rural school has its own distinct characteristics by the school types corresponding to each rural community. Characteristics with school types were influenced by school location, possible migration into the cities, possible opportunities of private tutoring, school size, social class distribution, socio-economic status, dwelling pattern of school teachers. In conclusion, it is important that the educational policies for rural area consider the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rural schools.

* 이 연구는 2008년 전남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e-mail: doohlee@jnu.ac.kr

주요어(key words): 농촌교육(Rural Education), 교육격차(Educational Gaps), 소규모학교(Small School)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농산어촌(이하 '농촌'으로 칭함)은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산업화, 도시화,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소외된 지역으로서의 특성과 문제를 안고 있으며, 교육 문제 역시 이러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교육격차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농촌은 중요한 주제로 간주되어 왔으며, 이는 농촌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로 이어졌다. 따라서 농촌의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한 국가적인 차원의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져 왔고, 2005년에는 각 분야의 정책을 종합하여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이 마련되어 추진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의 교육현실은 쉽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국가의 정책적인 지원의 결과로 물리적인 여건의 격차는 완화되고 있으나, 교육의 결과를 의미하는 학업성취도의 격차는 여전히 심화되고 있다. 또한 이처럼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도·농 간 격차는 농촌의 정주여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면서 이농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농촌의 교육은 단순히 시설의 개선이나 재정투입의 증대 등과 같은 물리적 요인에 의해서만 개선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학부모의 자녀교육 관련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리적 측면보다는 학부모들이 가진 교

육적 신념이나 정보 같은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농촌의 교육격차 해소 방안은 대부분 물리적 여건의 개선에 집중되고 있으며, 이는 교육결과의 개선이 동반되지 않으면 오히려 낙인효과에 의해 농촌교육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킬 위험을 안고 있다. 특히 농촌의 교육은 물리적 여건의 개선만으로는 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실제로 교육의 효과는 교사변인과 학생변인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요인들에 대한 고려가 이뤄지지 않은 채 농촌학교의 물리적 여건의 개선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은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구체적인 농촌의 교육활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적 접근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런데 모든 농촌지역이 동일한 특성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농촌의 학교들은 지역이나 구성원에 따라 각기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 교육의 양극화 현상은 도시-농촌 간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농촌지역 내에서도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다(이두휴, 2011). 이는 지역 내 인구이동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즉 읍지역의 경우는 인구유입이나 정체 현상으로 인해 도시지역과 유사한 규모를 보이는 반면, 면지역은 인구유출에 따른 소규모화가 진행되어 과소규모학교로 변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농촌 학교들 내에서도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농촌교육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학교 간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농촌의 학교들은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인 기능을 수행하고는 있지만, 학교가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 역시 다르게 나타난다. 같은 농촌이라도 지역 내에서 다양한 발전정도와 지역적 특성들이 존재(이동필 등, 2004)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교육학계에서는 농촌교육에 대한 연구 자체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농촌교육에 대한 접근 방식 역시 단편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특히 농촌 학교들이 지닌 다양한 특성이나 차이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농촌학교'라는 범주적 개념으로만 접근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접근방식은 농촌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획일적인 교육정책의 단초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농촌의 학교가 처해있는 상황을 분석하고 그에 적합한 교육정책의 마련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농촌지역을 읍, 면, 도서벽지 3개로 구분하여, 이들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중학교의 교육활동을 면담과 참여 관찰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함으로써, 농촌학교들이 지닌 각기 다른 특성과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1.2. 선행연구의 분석

농촌 교육과 관련된 연구들은 2000년대 들어서야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강만철, 이두휴, 손승남, 오익수, & 송현중(2002)은 질문지와 관찰, 면담 등을 통해 농촌교육의 실태를 분석하고 정책적 지원방안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도농 간 사회문화적인 교육환경의 격차 해소방안, 농어촌지역 우수교원 확보 방안, 농어촌 교육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국가적인 수준에서는 농어촌교육발전위원회가 출범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는데(정지웅 등, 2002), 이들은 농어촌 교육의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어촌교육의 비전과 방향, 농어촌 학교 운영모델, 농어촌 학교 교원 확보 및 복지향상, 농어촌 학교교육과정 운영 및 복식교수-학습방법 개선, 농산어촌 유아 학생에 대한 지원과 학교-지역사회의 연계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

남궁윤(2006)은 농촌지역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을 분석하면서

소규모학교가 산출해낸 성과는 무시되었고, 절차적 민주성이 훼손되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소규모 학교 통합 정책은 선행되어야 할 농어촌 소규모학교에 대한 우선적 배려정책, 그리고 특별법체제의 보호가 미비한 현행의 풍토에서는 농어촌 죽이기 정책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나승일 등(2006)은 농촌을 지역의 발전수준에 따라 4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농촌학교 교육여건 개선요구, 학부모의 자녀교육 지원요구, 농촌학교 교사의 지원요구 및 학부모의 지역사회 교육기회 개선요구를 지역유형별로 밝혀냈다. 특히 농촌지역의 요구는 구체적인 운영방안이나 우선순위에서 지역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지역별로 다른 접근을 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임연기(2007)는 기존의 농어촌 교육 관련 연구논문들에 대한 메타분석을 통해 도시와 농촌간의 교육격차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도·농 간 교육격차가 학업성취 부문에서 확실히 나타났고, 이러한 격차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는 가정요인이 가장 높았으며, 학교 그리고 학생요인 순으로 높았다. 도농 간의 격차는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준렬(2008)은 농촌교육지원사업에 투입된 예산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 사업이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재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며, 사업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필요한 사업, 정규교육을 활성화하는 사업에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한만길 등(2009)은 농산어촌 교육복지 실태에 관한 초·중등학교 교사와 학생의 만족도와 요구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교육

복지의 수준과 이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는 도시와 농촌 간에 차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읍, 면, 도서벽지에 따라 만족도와 요구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촌 교육과 관련된 연구들은 크게 교육격차를 다룬 연구들과 농촌교육정책과 관련된 연구들로 나뉜다. 그런데 이들 연구는 농촌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 읍면지역을 하나로 묶어서 접근하고 있을 뿐, 농촌 지역들 간에 존재하는 차이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 농촌경제학이나 농촌사회학의 영역에서는 농촌을 발전수준이나 규모에 따라 유형화하여 접근한 연구들이 많다(이정환, 1987; 성주인 & 송미령, 2003; 이동필 등, 2004). 교육 분야에서 농촌을 지역의 특성에 따라 나누어 접근한 연구는 나승일 등(2006)을 비롯한 소수에 불과하다. 또한 대부분이 양적 자료에만 의존하여 농촌의 교육을 이해하려 했다는 점도 질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2. 연구대상학교의 특성과 연구방법

2.1. 연구대상학교의 특성

이 연구는 농산어촌이 가장 많은 C도를 대상으로 읍지역, 면지역, 그리고 도서벽지에서 각각 1개의 중학교를 선정하였다. 대상학교는 농촌에 근무하는 교원 및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당해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드러낼 것으로 보이는 학교를 선정하였다. 읍지역 학교는 비교적 외부와 교류가 활발하고 도시보다는 규모가 작은 지역의 학교를 선정하였으며, 면지역 학교는 도시 및 읍지역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학교를 선정하였다. 연구대상 학교의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다.

읍에 소재한 중학교(이하 '읍내중'으로 칭함)의 경우에는 10학급에

303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교사들은 20명이 재직 중이다. 읍내중은 대도시로부터 승용차로 4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읍지역에는 2개의 공립중학교와 1개의 사립학교가 있다. 인접하는 면지역 중학교들이 학생 수 감소로 폐교되면서 통합되어 학생들의 거주지는 비교적 넓게 분포되어 있다. 교사의 특성을 보면, 30대 교사는 2명뿐이고, 나머지는 40대와 50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2명을 제외한 전 교사가 통근을 하고 있다. 학교 주변에는 14개의 보습학원이 있으며, 피아노 6개를 비롯한 예능 관련 10개, 영어 2개, 수학 2개 등 4개의 교과관련 보습학원이 있다. 읍지역에는 2만여 명 주민이 살고 있다. 학생들의 통학상황을 보면, 도보로 오는 학생들이 50%를 넘으며, 60%의 학생들이 통학거리가 4km 이내에 있다. 보호자의 직업은 상업이 가장 많으며, 농업, 기타의 순이다. 농촌지역이기는 하지만 학생들의 사회 경제적 배경에는 차이들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한부모 가정이 비교적 많아서 학교가 가정교육의 역할까지 담당하여야 한다.

면에 소재한 중학교(이하 '시골중'으로 칭함)는 3학급에 43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교사 8명, 교장 1명 등 9명이 근무 중이다. 시골중은 1980년대 중반에는 15학급에 이르기도 했으나, 계속된 학생유출로 지금은 3학급을 겨우 유지하고 있다. 읍에서 버스로 30분 거리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로, 주민은 1,138세대 2,000여 명이 거주하며 소규모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다. 국민공통 교과 중 음악과 미술은 순회교사가 배치되어 있고, 나머지 8개 교과당 각 1명의 교사가 근무 중인데, 이 중 1명은 타학교를 겸임하고 있다. 교사는 읍에서 통근하는 2명을 제외하고는 관사에 기거하며, 연령대도 30대가 4명, 40대가 2명, 50대가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부모들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결손가정이 많다. 자녀 교육 열의도 높지 않아 방과 후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정에 방치된 경우가 많으며, 특기·적성을 살릴 수 있는 문화 복지 시설도 없

어서 학생들은 문화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재학생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7명, 차상위계층 자녀 3명, 한부모가정 자녀가 3명, 조부모가정 자녀가 10명 등으로 결손가정학생이 전체의 50% 이상에 달하고 있다. 사교육 기관은 전혀 없어서 사교육을 받으려면 읍내로 버스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 지역이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녀들의 교육활동을 도와 주거나 충분하게 지원해 줄 수 없는 가정이 많아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지원이 매우 낮은 편이다.

도서벽지에 소재한 중학교(이하 '도서중'으로 칭함)는 3학급에 37명의 학생, 그리고 교사 7명, 교장 1명 등 8명의 교원이 근무하고 있다. 교원 구성을 보면, 국어, 도덕, 미술 등 3명은 기간제 교사이며, 다른 교과는 정규교원이 1명씩 배치되어 있다. 지역 특성상 모든 교원은 학교 바로 옆에 있는 사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20대 2명, 30대 2명, 그리고 40대와 50대가 4명이다. 도서중이 위치한 곳은 읍에서 하루에 4회 운항하는 배를 타고 50분가량 이동해야 하는 섬으로 2,8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학부모는 어업, 상업, 농업 등에 종사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학습의욕이 부족하고 기초학력이 저조한 편이며, 결손 가정이 많은 편이다. 재학생 중 기초생활 수급자 16.2%, 차상위 계층이 13.5%, 한부모 가정 및 조손 가정이 18.9%를 차지하고 있다. 도서중이 소재한 지역에는 사교육기관은 물론 학생들을 위한 교육 시설이 전무한 상태이다. 또한 원거리 학생들의 경우 등학교 시간에 맞추어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대중교통이 없어 등학교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대부분의 부모들이 농업이나 어업 등 생업에 종사하는 관계로 학교 이후 가정학습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학생들은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2.2. 연구의 방법 및 한계

연구자료의 수집은 대상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학생, 그리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2009년 2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9개월에 걸쳐 실시하였다. 연구자료의 수집방법으로는 면담과 참여관찰을 실시하였다. 학교별로 교장 및 교사, 그리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교원은 학교별로 교육경력을 고려하여 3명씩(교장, 부장 교사, 평교사)을 주요 면담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또한 학부모는 교사의 추천을 받아 면담하였다. 1회당 면담시간은 60분 내외로 하였으며, 면담의 횟수는 대부분 1~2회로 하였다. 또한 학교별로 수업과 방과 후 활동 등을 이해하기 위하여 4회에 걸쳐 참여관찰을 실시하였다. 면담을 위해서는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면담의 과정에서 피면담자의 응답내용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질문을 하거나 보충설명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피면담자들이 사용하는 언어들은 특유의 의미를 갖지 않는 경우 표준어로 바꾸어 기술하였다. 또한 구어들의 경우도 의미전달에 특별한 영향을 주는 것을 제외하고는 문어체로 변환하여 기술하였다. 또한 자료의 분석의 과정에서는 농산어촌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교사들에게 자문을 받아 분석의 타당성과 의미를 높이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농촌지역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중학교의 교육 활동을 질적인 측면에서 이해하려 한 것으로 연구의 결과를 전체 학교로 일반화시키는 데는 무리가 있다.

3. 농산어촌 중학교 교육활동의 특성

이 장에서는 면담과 관찰의 결과를 중심으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수업활동, 방과 후 교육활동, 생활지도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3.1. 읍내중학교(가칭)의 교육활동과 특성

3.1.1. 수업활동

한국의 다른 중학교들 마찬가지로 읍내중학교는 국민공통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수업시간마다 주어진 학습목표가 존재하며, 교사들은 이를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읍내중의 규모는 도시에 비해 작지만,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는 무리가 없는 교원 수를 확보하고 있다. 학급당 학생 수는 35명이나 되기 때문에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하기 보다는 교사를 중심으로 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읍내중 교사들은 자신의 수업 방식이 도시에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한다.

여기는 도시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아이들이 학원도 다니고 또 학생 수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도시와 차이라면 우수한 아이들은 적은 편이고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아이들이 많다는 거지요...(부장교사)

읍내중학교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분석해 보면 우수학생들은 도시지역보다 적지만, 보통 이하의 학생들이 많은 편이다. 물론 도시에 학력이 낮은 학생들이 많지만, 읍내중학교의 경우에는 이런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많을 뿐만 아니라, 부족한 학력을 보충할 적절한 수단도 존재하지

않는다.

읍내중 학생들 간에는 학력의 차이가 크고, 학생들은 학교수업에 그다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 학교 역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갖고 있지 않다. 학생 수가 많아서 개개 학생들을 고려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교사들은 상위권 학생을 중심으로 주어진 교육과정을 운영해가고 있다. 특히 성취의욕도 없고 학습능력도 없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에게 관심을 기울일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아이들이 천차만별인데다가, 학생 수도 많고 또 의욕이 없기 때문에 교사가 주도해서 일방적으로 진도 나가기식 수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전혀 안 되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래도 하려는 아이들은 해야 하나까요...(부장교사)

이처럼 읍내중에서는 일부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학생들은 수업에 형식적으로 참여만 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교육과정에 따라 읍내중에서도 학생들의 차이를 고려한 수준별 수업이 실시되고 있다. 특히 영어와 수학은 단계별 수준별 수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상급반의 경우에는 수업분위기가 좋은 편이지만 하급반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업을 실시하기 어렵다. 상급반은 상급이라기보다는 보통수준의 학생들로 구성되어 동질적이지만, 하급반의 경우에는 학생들 간 수준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수업 운영이 매우 어렵다. 특히 이들 학생은 학습의욕이나 동기유발이 전혀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문제는 학생 수가 많아서 교사들이 그러한 학생들에 관심을 가지면서 수업을 이끌어갈 형편이 못 된다는 것이다.

수준별 수업은 그래도 공부하려는 학생들에게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그러나 하급반은 그 반대다. 하급반의 교과수업을 들여다보

면 교과내용보다는 학생들의 삶이나 주변이야기들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교사들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이런 아이들에게는 학습지도가 아닌 상담이 필요해요. ... 우선 그 아이들의 마음을 치료하는 게 급선무죠... 삶의 목표가 '자기를 버린 아버지 찾아서 죽이는 것'이라는 아이를 앉혀놓고 수업한다고 효과가 있겠어요?...(부장교사)

수업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많지만, 도시학교들처럼 수업시간에 반항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등 교실붕괴(이혜숙, 2008)의 징후들은 나타나지 않는다. 교사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진다. 그렇다고 이러한 부류의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교실에는 일종의 묵시적인 계약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묵시적 계약이라는 것은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몸만 교실에 있어 주는 것이고, 교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수업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을 강제로 참여시키지만 앉으면 되는 것이다. 교사 역시 이러한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교사들의 사기도 저하될 수밖에 없다.

신이 나야 하잖아요. ... 공부도 잘하고 열심히 하는 애들이 도시 학교는 제법 있는데, 이런 곳에서는 별로 반응이 없어요...(부장교사)

이런 현상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와 같은 시험기간에도 마찬가지이다. 읍내중에서는 시험기간이 다가와도 긴장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이는 학생들은 별로 없다. 소수의 상위권 학생을 제외하고는 시험에 관심이 없다. 따라서 시험을 준비하는 소수의 학생들과 시험에 무관심한 다수의 학생들로 양분된다.

관심이 없는 애들은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수업 중에 아무리 강조해도 공부를 안 해요. ... 그래서 힌트도 다 주고 하지만... 소용이 없어요...(교사 3년째)

전체적으로 경쟁이 치열하지 않고 공부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소수에 불과하며, 그들의 학력 수준 역시 도시처럼 높지는 않기 때문에 아무리 쉽게 출제해도 충분한 변별력을 갖는다. 따라서 시험은 비교적 쉬운 문제로 출제되며, 교사들은 수업 중에 가급적이면 시험에 관한 정보를 많이 주려고 노력한다.

3.1.2. 방과 후 교육활동

읍내중학교에서 방과 후에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은 교과관련활동과 특기적성 관련 활동으로 나뉘어지며, 교육청과 지자체의 지원으로 무상으로 실시된다. 교과관련활동은 교과보충 및 심화학습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1학년은 단일학급으로 2, 3학년은 보충과 심화과정으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다.

교과보충 및 심화학습의 형태로 운영되는 교과 관련 방과 후 활동은 정규수업과 별 차이가 없다.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루에 2~3시간씩 교과를 중심으로 운영하다 보니 방과 후 교육활동은 학생들에겐 수업의 연장외밖에 해석되지 않으며,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시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교사도 그대로고, 내용도 비슷하니 학생들이 학교 수업의 연장외밖에 안 보는 거지... 게다가 학원이 있으니 거기서 배우면 된다는 생각도 있고...(교장)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운영되는 2~3학년의 보충수업은 그래도

나은 편이다. 그러나 이 역시 수업과 마찬가지로 성적이 우수한 집단에서만 효과적인 것처럼 보인다.

잘하는 아이들로 구성된 반은 비교적 괜찮은 편이고요, 일반 아이들은 그냥 시간 때우기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부장교사)

이처럼 하위권 학생들에게 보충수업은 일종의 형벌로서 다가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학생들을 상대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교사나 학생 모두에게 시간 때우기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한다.

특기적성 관련활동은 10개 분야가 운영되는데, 외부강사와 내부강사 각 5명씩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그램을 보면, 체육 2개, 미술 1개, 음악, 컴퓨터, 마술 등 각 1개, 교과관련 4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읍내 중에서는 학생들의 요구를 고려하지만, 그대로 프로그램을 개설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많다. 즉 담당강사를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역에서 확보할 수 있는 강사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 그래도 읍지역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가능한 일이다.

학생 수도 그런 대로 확보되고, 인근에 다른 학교들이 있어서 강사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서 10개 프로그램이 운영되지요. ... 특히 마술 같은 것은 강사 데려오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닌데...(부장교사)

읍내중학교의 경우 대도시로부터 접근이 용이하고, 읍내에 다른 중학교와 초등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위한 강사를 확보하기가 비교적 용이하다. 즉 1명의 강사가 2개의 학교에서 강좌를 담당하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강사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학생들의 참여는 여전히 활발하지 않다.

읍내중학교에서는 3학년을 제외하고는 보충수업이 끝나면 귀가한다. 3학년의 경우에는 고입 선발고사도 있고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요구를 수렴하여 야간자율학습을 실시하고 있다. 자율학습은 아홉시까지 실시되며, 이는 교사들이 번갈아가면서 맡아서 지도한다. 1~2학년에 대해서도 자율학습의 확대를 희망하는 학부모들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교사들이 통근하기 때문에 실시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학교가 자녀들에게 더 많은 교육적 배려를 해주지 않는 데 대한 학부모들의 불만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지역사회 전체의 입장으로 확대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많은 학생들이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일률적인 자율학습이나 방과 후 수업이 어려울 때도 있기 때문이다.

3.1.3. 생활지도

읍내중에서는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해가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자주 발생한다. 학생들끼리 싸움이 일어난다거나 교실에서 도난 사건이 발생한다거나 학생들 간에 따돌림 현상이 발생한다거나 하는 일들이 바로 그것이다. 실제로 이와 같은 일들은 표면화되어야만 교사에 의해서 파악되기 시작한다. 그것은 학생 수가 많다는 사실과 관련이 깊다. 즉 학급당 학생 수가 35명에 이르고 있으며, 전체 학생 수가 300명을 넘기 때문에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세세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형식적인 수준에서 관여할 수밖에 없고, 문제가 표면화된 후에야 비로소 교사에게 인지되기 때문이다.

읍내중에 다니는 학생들은 대부분 학교생활을 별 문제없이 영위해가지만, 심각한 일탈행위가 반복되는 학생들도 존재한다. 이러한 학생들에 대해 교사의 상담이나 제제도 있지만 그다지 효과적이지는 않다. 일탈행위들은 대부분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며, 가출은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일탈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읍내중에서는 가출 경험을 가진 학생들

이 15명이나 된다. 교사들은 이러한 일탈행위가 문제이기는 하지만, 학생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해할 수 있는 행위라는 입장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다.

도시 학교보다 가출하는 애들이 훨씬 많아요. ... 이해가 돼요. ...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신의 처지를 보면 희망이 없잖아요? 집을 나가 주유원이나 배달원을 해도 이보다는 낫겠다는 생각을 하고 집을 나가지요...(부장교사)

가출은 답답한 현실로부터의 탈출인 것이다. 이들의 무기력함을 달래주는 존재가 친구들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읍내중에서의 가출사건은 대부분 동반가출 혹은 연쇄가출의 성격을 띤다. 즉 먼저 가출한 학생이 다른 학생들을 불러내거나 2~3명이 함께 가출하는 경우가 많다.

읍내중은 도시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들, 떠나고 싶지만 떠나지 못하는 학생들이 섞여 있는 공간이다. 그래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들의 무관심, 떠나지 못하는 학생들의 분노와 좌절이 내재된 공간이다. 그런 점에서 읍내중학교에서 학생들의 일탈은 떠날 수 없는 학생들의 좌절과 분노, 그리고 자신의 열악한 삶의 조건으로부터의 탈주인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일탈은 자신의 무의미한 삶으로부터의 일탈인 셈이다. 이러한 일탈의 배경에는 가정의 무관심이나 열악한 가정환경,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학교교육이 자리 잡고 있다. 실제로 이들에게는 학교를 꼭 가야 할 이유가 없다.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또 공부를 하라는 주위의 압력이나 관심도 없다. 게다가 공부를 하고자 해도 지원해 줄 능력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습관적으로 지각을 하는 한 학생의 경우에는 보호자인 할머니가 학교는 당연히 그 시간에 가는 것인 줄 알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읍내중학교의 경우 방과 후에도 학생들끼리 어울려 다니는 일이 흔하

다.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학원이 얼마 되지도 않고 학습의욕도 높지 않기 때문에 일부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친구들과 어울리는 데 시간을 보내게 된다. 대부분 보호자들이 무관심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방치된 학생들이지만, 꼭 그런 것만도 아니다. 학교나 학원이 끝나면 달리 할 일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친구들 집이나 PC방 등을 전전하면서 시간을 때운다. 이러한 패거리 문화 속에서 가끔씩 문제행동을 일으키지만, 학교나 교사가 개입할 만큼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3.2. 시골중학교(가칭)의 교육활동과 특성

면지역 학교들은 농산어촌 학교의 절대 다수를 구성하고 있다.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면지역 학교는 규모가 읍지역 학교의 반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읍지역과 달리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도 낙후되어 있다. 시골중학교를 중심으로 면지역 학교들의 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3.2.1. 수업활동

면지역에 소재한 소규모학교인 시골중학교는 교사 수가 적어 국민공통 교육과정을 운영하기도 어렵다. 외형적으로 보면,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5명 이내, 학급당 학생 수는 15명도 안 되는 우수한 환경이지만 실제로 수업을 담당하지 않는 교장을 제외하면 교원 수는 8명에 불과하다. 따라서 10개에 이르는 국민공통교과목 중 2개 교과는 겸임교사에 의존하고 있다. 시골중학교의 경우 소규모 학교이기 때문에 교사의 수업시수가 적고 학생 수도 적어 학습지도가 상대적으로 쉬워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시골중학교에서 수업의 목표는 물론 교육과정에 명시된 진도를 따라가는 것이겠지만, 이는 표면적인 목표에 불과하다. 많은 학생들이 기초학 습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기가 어렵다. 교사들은 주어진 교육과정을 시골중학교의 학생수준에 맞도록 하향 조정하여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수업의 목표는 쉽고 재미있게 가르치는 것이다. 시골중학교의 교사들은 많은 것을 가르치기보다는 조금만 가르치되, 학생들이 의욕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데 수업의 초점을 두고 있다. 사실 수업의 내용보다는 학생들의 동기나 의욕을 북돋우는 것이 수업의 실질적 목표가 되고 있다.

조금이라도 알기 쉽게 가르쳐야지요. ... 어차피 이 아이들이 공부로 인생의 승부를 볼 애들은 아니니까요. ... 무엇이 진짜 도움이 되는지... 그걸 해야 하는데... 그럴 수도 없잖아요...(부장교사)

학급당 학생 수가 12~13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업상황에서 교사가 학생들을 파악하고 통제하기는 어렵지 않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학력수준이 낮고 학습의욕이 없기 때문에 수업에 대한 참여는 매우 소극적이다. 학생 수가 적어서 쉽게 통제가 되기도 하지만, 수업시간에 즐기거나 다른 행동을 하는 학생이 거의 없다. 이러한 현상은 시골중학교에 흐르는 정서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소규모 학교이기 때문에 교사와 학생들의 상호작용이 빈번하며, 학생들은 교사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노력한다. 또한 교사들 역시 학생들을 성적보다는 인간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수업내용은 잘 모르지만, 수업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시골중의 경우 학생 수가 적어서 읍내중처럼 일부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수업을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전체 학생들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수

업진도는 지체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학생들의 기초 학습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과 진도를 나가는 것은 매우 힘들다. 따라서 학습의 양을 줄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업은 2~3명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며, 나머지 학생들에게는 수업의 진행과정에서 그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수준-예를 들 때 특정 학생을 지목한다거나 아주 쉬운 질문에 답하게 한다거나 하는 방식-에서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물론 수업을 해야지요. ... 그런데 아이들이 관심도 없고 능력도 안돼요. ... 그러니까 공부를 그래도 좀 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수업을 하고, 다른 아이들은 달래고 타일러서 (시간을 때워) 나가는 거지요. ... 사실 모든 아이들 다 가르치고 가려면 도저히 진도를 따라 갈수가 없어요.(교장)

이러한 이유로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은 방치될 수밖에 없다. 이들을 단기간 내에 해결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가르치면 되지 않느냐고요? 너무 안 돼 있어요. 중학교 수준이 아니라 초등학교부터 다시 가르쳐야 하는데 그럴 수도 없잖아요. ... 이런 학교일수록 수준별 수업이 필요한데... 교사가 없잖아요? 교과당 1명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데 어떻게 수준별 지도를 해요. ...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교사 8년째)

현행 교육과정체제에서 이러한 학생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수준별 지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골중학교 같은 면지역의 소규모 학교에는 수준별 지도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또한 시골중학교처럼 학력이나 성취동기가 낮은 학생들을 위해서는 개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러나 교과목당 1명의 정규교원도 확보되지 않는

학교실정에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지도할 방법은 없다. 학생 수가 적어서 개별적인 관심을 기울일 수는 있지만, 이를 수업활동과 연계하는 것은 별개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문제인 것이다.

시골중에서도 수업 중에 집단별 수준별 지도를 실시하고는 있지만, 이는 진도를 따라오는 학생과 따라오지 못하는 학생을 구별하는 장치에 불과하다. 즉 교과 수준을 따라오는 학생들과 그렇지 못한 학생을 구분하여 따라오는 학생들만을 가르치고 있을 뿐, 나머지 학생들에게는 적합한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시골중에서도 다른 지역의 학교들처럼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라는 형태로 한 학기에 적어도 두 번의 시험이 치러진다. 그런데 시험이 다가온다고 해도 학생들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는다. 시험기간이 되면 바빠지는 것은 오히려 교사들이다. 학생들의 성취동기가 낮다 보니 시험기간이 되면 교사들의 걱정거리가 생긴다. 평균성적이 너무 낮게 나오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시험문제를 거의 알려주다시피 찍어줘야 해요. ... 그래도 공부를 안 하기도 하고, 한다고는 해도 점수가 안 나오니까요?...(부장교사)

이런 이유로 시험기간에는 수업시간이 예상문제를 설명하는 시간이다. 직접 문제를 알려주지는 않지만,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중요한 부분을 꼭 숙지하도록 당부한다. 즉 '이것은 중요하니까 꼭 나온다'라는 식의 수업이 진행된다. 뿐만 아니라 성취도 평가 같은 것이 치러지는 경우에는 요점을 정리해서 나눠주며, '중요하니까 외우거나 알아둬야 한다'는 것을 일일이 당부하는 수업이 진행된다. 시험은 변별력이나 석차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학생들의 평균 울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쉬운 문제를 출제하고 가능한 한 학생들에게 많은 정보를 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시험에 대한 동기유발은 되지 않는다.

시골중학교 학생들 간에는 경쟁의식이 별로 없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낮은 성취동기 탓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학생들 간에 고착화된 서열의식이 존재한다는 이유도 있다. 시골중학교에서는 공부 잘하는 아이가 누구인지를 학교구성원 모두가 알고 있으며, 이것은 지역사회에서 공인된 사실이다. 시골중학교의 학생들이 초등학교를 다닐 때부터 함께 자라왔기 때문에 '특정 아이가 1등'이라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으며, 그러한 사실이 바뀌지는 않는다고 믿고 있다. 학생들도 그러한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굳이 공부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따라서 경쟁을 위한 동기유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3.2.2. 방과후 교육활동

시골중학교 주변의 교육환경은 매우 열악한 편이다. 즉 학생들이 다닐 만한 마땅한 사교육기관도 없으며, 그렇다고 읍으로 사교육을 받으러 나갈 만큼 교통이 편리하거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다. 실제로 시골중의 전체 학생 중 2명이 읍내에 있는 학원을 다니고 있으며, 7명은 방학 중 읍에 있는 학원을 다닌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런 현실에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의존할 수 있는 것은 학교뿐이다. 시골중학교에서는 방과 후에도 학교가 열려있다.

시골중에서의 방과 후 교육활동은 교과관련활동과 특기적성관련활동으로 나뉜다. 교과관련활동은 교과보충학습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교과보충학습은 기초학습능력이 현저히 낮은 시골중학교의 실정에서는 꼭 필요한 수업이며,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관내에 사교육기관이 없고, 경제적 지원능력이 취약한 시골중학교의 학생들에게 정규교과와는 달리 기초학력을 보충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의미가 크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어렵다. 교사도 부

족하고, 더욱이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교재도 없다.

초등학교 교재를 갖고 가르치는 게 맞아요. ... 그런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 그래서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교재를 만들어야 하는데... 누가 만들어요?... (부장교사)

그렇다고 기대한 만큼 효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기초학력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단기간이 아닌 장기간에 걸친 계획과 프로그램, 그리고 인적 자원의 투입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한 것이다. 실제로 시골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재정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지원할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교재를 만들고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지도해야 하는 교사가 필요한 것이다. 물론 기존의 교사가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수업 및 기타 업무 등을 생각하면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제도적인 정비도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방과 후에는 초등학교 수준의 교육내용을 가르치고, 일과 중에는 중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하는 이중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일반학교와는 다른 방식의 교육과정 운영체제가 요구되는 것이다.

특기적성교육도 마찬가지다. 특기적성교육활동은 4개 반이 운영되는데, 체육활동 2개, 영화 1개, 외국어 1개 반이다. 3개 프로그램은 교사가 담당하고 1개만 외부강사에 의존하고 있다. 학생 수가 적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도 없지만, 더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을 담당할 강사가 교사 이외에는 없다는 점이다.

수요조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 아이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은 강사 구하기가 어렵고... 또 원하는 것도 특별히 없어요. ... 그나마 스포츠활동 같은 경우는 아이들도 좋아하고, 교사들이 지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요...(부장교사)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시골중학교에서 운영되는 특기적성교육활동은 사교육기관이 전무한 농촌지역에서 의미있는 문화적 체험의 기회가 된다. 그러나 교사들이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교생들이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 특히 시골중학교의 교사들은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표정에서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열정과 적극성을 발견하기도 한다.

처음에는 수줍어하던 아이들이 열심히 참여하고 자기표현을 하는 것을 보면... 아! 이 아이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를 느끼게 되요. ...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일 수 있다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구요...(교사 8년째)

실제로 교과학습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학생들의 변화를 읽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자가 참여 관찰하는 과정에서도 수업에서와는 다른 매우 적극적인 참여자세와 의욕, 그리고 활발한 자기표현활동을 볼 수 있었다.

집안일을 돕는 것 말고는 학교가 끝나면 달리 할 일이 없는 학생들을 위해 시골중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밤 9시까지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을 실시하고 있다. 시골중이 소재한 면지역에는 사교육기관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학교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 또한 학교에 대한 학부모나 학생의 신뢰도 매우 높은 편이다. 출퇴근 하는 교사들도 있고, 주중에 집에 다녀오는 교사들도 있지만, 3학급에 불과하고 관사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교사들은 번갈아가면서 방과 후에도 학생들을 지도한다. 자율학습 시간에는 교육방송을 시청하고 그에 대한 보충학습을 실시한다. 학생들이 교육방송의 원격강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기 때

문에 이에 대한 별도의 수업이 필요한 것이 시골중학교의 현실이다.

교사들이 교대로 보충수업하고, 9시까지 자율학습지도를 해요.
사실 더 오래는 못하는 이유가 학생들 하교 문제가 있으니까요...
(교장)

그런데 방과 후 학습지도에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즉 학생들의 통학문제이다. 학생 수는 적지만, 거주지가 넓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통학범위는 매우 넓은 편이다. 반면, 도시처럼 대중교통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밤이 되면 학생들을 귀가시키는 것이 어렵다. 먼 곳에 사는 학생들은 승용차로 데려다 주기도 하는데 언제나 불안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 어려운 일이 생기기 때문이다.

3.2.3. 생활지도

시골중학교는 조용하면서도 정적인 유대가 강한 소규모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유사한 수준과 처지의 아이들이 모여 살다 보니 학생들 간에 공동체 의식은 강한 편이다.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대부분이 함께 생활해 온 아이들이기 때문에 특히 정적인 유대가 강하다. 학생들의 표정만 봐도 서로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강한 내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시골중학교는 가족 같은 분위기를 지니고 있다. 실제로 시골중학교 학생들은 경제적인 측면이나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동질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가난하고 외로운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학생들이 경험하는 삶에는 질적으로 차이가 없으며, 유사한 처지와 경험들은 학교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감싸주는 역할을 한다. 학생들은 서로에 대해서 비밀이 없을 만큼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러다보니 학

생들 간에는 가끔씩 크고 작은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 역시 그들이 초등학교 이전부터 오랜 기간 함께 생활해 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즉 서로에 대해서 아는 것이 너무 많다 보니 오히려 그것이 학생들 간에 갈등을 불러일으키기도 하는 것이다.

전교생이 도시 학교의 1학년 수준에 불과하고, 교사 역시 전 학년을 가르치다 보니 시골중에서는 학년이나 반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전 교사가 학생들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 역시 모든 교사를 자신을 가르치는 선생님, 즉 '우리 선생님'으로 지각하고 있다. 학생들은 담임뿐만 아니라 모든 교사들에 의해서 지도된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교사들은 학생들의 등교하는 표정만으로도 학생들의 문제를 감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지각은 모든 교사들이 공유하고 있다.

조그마한 학교건물에서 교사와 학생들은 매 시간 얼굴을 마주치기 때문에 학생들의 문제는 곧장 파악이 되며, 문제로 표면화되기 전에 알려지는 경우가 많다. 학생들은 교무실에 드나드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으며, 교사들과 스스럼없이 대화를 나눈다. 대화의 주제 역시 다양하다. 그러나 학업과 관련된 내용보다는 일상적인 내용들이 많다. 학생들은 시시콜콜한 이야깃거리들을 가지고 교사들의 길을 막아서기도 한다. 사실 막아선다기보다는 학교가 작기 때문에 교사와 학생들은 하루 종일 부딪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골중학교에서는 비밀이라는 것이 없다. 하루만 지나면 학생들과 관련된 내용들이 모두 공유된다고 할 수 있다.

시골중학교에서는 생활지도가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골중학교의 교사들이 생활지도과정에서 겪는 독특한 어려움이 있기도 하다. 그것은 학생들의 가정환경 문제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들이 표면화되면서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교사의 힘으로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3.3. 도서중학교(가칭)의 교육활동과 특성

도서벽지학교는 면지역 학교와 유사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면지역 학교들은 소재 지역에 따라서 학교 간 편차가 큰 데 반해, 도서벽지의 학교들은 그렇지 않다. 도서벽지 학교의 가장 큰 특징은 고립성이다. 물론 도서지역과 비도서지역의 벽지학교는 고립성의 정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면지역 학교들보다 고립의 정도가 높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읍이나 도시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고립되어 있다. 이러한 특성들은 학교 안을 들여다보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3.3.1. 수업활동

도서중학교는 면지역에 소재한 시골중학교와 마찬가지로 소규모학교의 한계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법정 교원 수만으로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정규 교원은 8명에 불과하지만 기간제 교사가 3명 배치되어 있어 국민공통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은 갖추고 있다. 지역적으로 고립되어 있다는 현실 때문에 면지역 학교들처럼 순회교사나 겸임교사 대신 기간제 교사가 배치된다는 점은 인적 자원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관점에서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시골중학교와 마찬가지로 도서중학교도 소규모학교이기 때문에 수업은 학급당 학생 수가 적은 이점을 살려 학생들의 개별적인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이루어진다.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학습진도를 따라오는 학생들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학생 수가 많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적은 수이다 보니 이해했는지를 확인해야 하잖아요. ... 사실 숫자가 적으니까 눈에 보이는데 확인을 안 할 수 없잖아요. ... 그러니... 아이들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가르쳐야 할 것 같아요. ... 그런데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지요...(교사 5년째)

이렇게 배려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업은 일부 학생들의 참여로만 운영되는 경향이 있다. 도서중학교와 같은 현상은 면지역인 시골중학교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던 현상이다. 도서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승진을 목표로 하는 교사와 신입교사들이 주로 배정된다. 또한 기간제 교사를 선발하는 경우에도 열악한 생활환경 때문에 지원자가 없어서 학교의 의지대로 선택할 수 없다. 이처럼 신규나 기간제 교사 등으로 이루어진 인적 구성으로는 도서중학교와 같이 다양한 능력의 차이를 보이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 사실 신입교사나 기간제 교사들은 도서중학교의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필요한 방법들을 습득하지 못한 채 학교에 온다.

지나다가 수업하는 거 보면 애들과 선생님이 따로 놀아요. ... 아이들 다루는 방법, 특히 이런 시골 애들 다루는 방법을 전혀 모르고 수업만 하는 거지요. ...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적응해 가지만...(교장)

수업의 방식이야 어떻게 되었든 수업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진행된다. 시골중학교와 마찬가지로 학생 수도 적고 학교가 가족과 같은 온정적인 분위기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수업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수업시간에 진지하게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수업은 진도보다 학생들의 이해 증진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학습량보다는 동기유발이나 수업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진행된다. 따라서 학생들은 수업에는

열심히 참여하지만 실제로 수업으로 전달되는 지식의 양은 많지 않다.

선수학습이나 기초학습능력을 필요로 하는 주지교과에서 학생들은 진도를 따라가는 데 어려움을 겪지만, 체육이나 음악, 미술 등과 같은 교과에서는 다른 행동을 보인다. 특히 체육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가 적다는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수업이 된다. 연구자가 관찰하면서 자주 접할 수 있었던 체육수업은 테니스와 탁구 수업이었는데, 이러한 수업은 개인교습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었다. 학생들은 이러한 활동에서 많은 흥미와 관심을 보이고 참여하고 있었다.

도서중학교에서도 정부정책에 따라 영어와 수학은 수준별 수업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학생 수도 적고 이를 지원할 교사도 없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만 학급 내에서의 수준별 분단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실제로 수업내용을 보면 교사는 동일한 내용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상의 수준별 수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교사는 일부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을 뿐이다. 즉 기초학력이 낮아서 따라오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목표와 내용을 하향조정하여 가르치지 않는 것이다. 이처럼 중학교 과정을 이수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이나 전문가가 배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하는 현실은 교사와 학생 양측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즉 교사들에게는 시간과 프로그램의 부재, 전문성의 부족, 학생들에게는 적절한 교육의 제공 실패라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고립이라는 도서중학교의 특성은 유사한 규모를 지닌 먼 단위의 다른 시골학교와는 다른 문제점을 하나 지니고 있다. 즉 수업결손의 문제이다. 많은 편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도서지역의 경우 교사의 출장이나 다른 업무에 의한 수업결손이 자주 발생하는 편이다.

이곳은 수업결손이 잦다고 할 수 있어요. 육지와 달리 출장을 가면 당일에 돌아올 수도 없고… 또 일기에 따라 못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기간제 교사나 각종 인력을 구하기가 쉽지도 않고…(교장)

이런 이유로 도서중학교의 학생들은 육지의 학생들과는 달리 안정적인 고 일관된 교육을 덜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지리적인 한계 때문에 적절한 인적 자원의 확보에서도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3.3.2. 방과 후 교육활동

도서중학교의 방과 후 교육활동은 교과관련활동과 특기적성관련활동으로 나뉘며, 교과관련활동은 교과보충학습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교과보충학습은 기초학습능력이 현저히 낮은 도서중학교의 실정에서는 꼭 필요한 수업이다. 특히 학생들의 학습능력이 너무 낮고 가정에서 학습지원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방과 후에 이루어지는 교과 보충수업은 전교생이 참여하고 있다. 교과보충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참여는 하지만 그다지 열성적이지는 않다. 이는 교과보충수업의 방식에서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 면단위의 소규모학교인 시골중과는 달리 도서중학교는 중상위권에 속하는 학생들도 몇 명은 된다. 즉 학생들의 학력수준에 양극화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학생 수가 적어서 이를 구분하지 않고 수업이 이루어지다 보니 교과보충수업의 본래 취지가 성취되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즉 전반적으로 학력이 낮아서 하위권 학생들에 수준을 맞추다 보니 수준이 낮아지게 되는데, 문제는 이들 하위권 학생들의 성취의욕이 거의 없기 때문에 별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결과로 교과보충은 어느 수준의 학생들에게나 외면받는 형태의 수업이 되고 마는 것이다. 이는 결국 시

골중학교와 마찬가지로 적절한 프로그램과 지원인력의 부족 문제로 귀결된다.

도서중이나 시골중 모두 교과 보충수업은 EBS교재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방송에서 이루어지는 강의의 수준이 도서중학교의 학생들 수준과는 맞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이러한 현실은 다른 인터넷 과외나 동영상 강의 등에서도 마찬가지 문제를 드러낸다. 즉 대부분의 교재나 강의가 보통 혹은 우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강의나 교재는 도서중학교 학생들에게는 효과적이지 못한 것이다. 즉 대부분 기초학력 미달자로 구성되어 있는 도서중학교에서 교육방송에서 실시되는 강의는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보충수업이 필요하다. 사실은 대안적인 교재나 지도방법이 요구되는데 현실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도서중에서는 방과 후에도 전교생을 대상으로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이 실시되고 있다. 이는 열악한 지역의 교육여건과 학생들의 낮은 학력수준을 향상시키려는 지역사회와 교사들의 공동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도서중 학생들은 과외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과외에 대한 막연한 환상을 갖고 있는데,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방과 후 학습지도는 그들의 이러한 욕구나 환상을 충족시켜주는 기능을 담당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교과 보충수업은 실시되고 있으며, 이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이탈을 하지는 않으나, 참여는 수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도서중에서 특기적성 교육프로그램은 5개가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1개는 독서활동, 기악, 그리고 3개(탁구, 배드민턴, 테니스)는 체육활동이다. 일반적으로 수요자의 요구에 맞추어서 운영되어야 하지만 도서중학교에서는 공급자 중심의 교육과정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도서중학교의 특기적성 교육 프로그램의 담당자들은 모두 도서중학교의 교사들이다.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학교 규모가 소규모이기 때문에 외부강사

를 초빙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교사가 담당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할 수밖에 없다. 즉 독서는 국어교사, 기악은 음악교사, 탁구, 배드민턴, 테니스는 체육교사와 해당 종목을 잘하는 교사가 나누어서 맡는다. 그런데 문제는 학생들 역시도 특별한 요구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사들이 프로그램을 미리 제시하는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학생들에게 수요조사를 해도, 마땅히 하고 싶은 게 없어요. 막연하니까 우리가 몇 가지 대안을 만들어서 의견조사를 하는 거지요.
... 그러면 아이들도 그중에서 선택하게 되고...(부장교사)

특기적성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교과 보충이나 정규 교과 수업과는 다른 방식의 활발한 참여를 보인다. 실제로 이와 같은 프로그램에는 선수학습이 요구되지 않고, 학생들의 현재 수준에서 시작하기 때문이다.

3.3.3. 생활지도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도서중학교의 학생들은 육지로부터 떨어진 섬지역에 고립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하나로 묶이게 된다. 고립이라는 특성은 지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인 모든 혜택으로부터의 고립을 의미하며, 학생들의 개인적 배경 특성의 차이를 동질화시킨다. 학생들 간 빈부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의해 추가적인 격차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즉 과외를 할 수도 없고, 특별한 문화생활을 즐길 만한 곳이 없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반영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이처럼 격차를 느낄만한 외부 요인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은 더욱 동질화된다.

이러한 고립감은 교사와 학생 모두를 쉽게 친해지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섬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의 삶은 사적인 영역을 매우 축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즉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고 모든 것이 공개되는 도서지역에서의 삶은 결속력이 강한 공동체를 형성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따라서 구성원들 간에 정(情)적인 유대가 강하게 형성된다.

학생들 간에는 학업보다는 인간적인 교류가 강하게 작용한다. 학교 근처에 사는 학생들은 걸어서 등하교를 하며, 먼 거리에 사는 학생들은 통학시간에 맞춰 운행되는 버스를 타고 오기 때문에 혼자 다니는 학생들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따라서 ‘누가 학교에 안 오는지?’, ‘왜 안 왔는지?’를 교사가 별도로 파악할 필요가 없다. 함께 다니는 친구들이 해당 학생에 대한 정보를 모두 갖고 학교에 오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도서중학교에서는 학생들과 관련된 문제가 표면화된 후에야 교사들이 이를 알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특히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학생들 상호간뿐만 아니라 모든 교사들에 의해서 학생들의 정보는 공유된다.

아침에 얼굴들 보면 다 알아요. ... 잠을 잘 잤는지? 집에 무슨 일 있는지? 밥은 먹고 왔는지? 어제 누구랑 다뤘는지? ... 사실 좀 과장하면 누구네 집 제삿날이라든가... 좀 과장하면 밥숟가락 수라든가 모두 알지요...(교장)

도서중학교에서 교사와 학생들은 매우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육지와 달리 고립되어 있다는 특성상 교사들은 학교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학생들과 가깝게 생활할 수밖에 없다. 특히 방과 후 9시까지 이어지는 자율학습 시간에도 모든 교사가 학교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으며,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하기 때문에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관계는 수업시간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수업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은 수업 중에 개별적인 학생들과 관련

된 이야기들을 소재로 끌어들이거나 학생들의 반응을 유도함으로써 그들을 수업에 참여시키고 상호작용을 이끌어간다.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교육활동의 측면에서 보면, 도서중에는 수업과 생활지도, 담임과 비담임 등과 같은 경계가 약화된다고 할 수 있다.

아이들이 이야기해주기도 하고, 우리도 아이들 얼굴이나 표정 보면 다 아니까 데려다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데 상담이랄 게 없어요. ... 그냥 일상적인 일이지요...(교사 5년째)

도서중과 같은 학교에서는 별도의 상담 시간이라는 게 필요가 없다. 교사와 학생들은 하루 종일 서로 교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업시간, 쉬는 시간, 점심시간, 방과 후 언제 어디서든 학생들과 교사들은 필요한 대화를 주고받는다. 따라서 교사들이 학생들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는 거의 없다.

이러한 현실은 학생들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학생들 간에 다툼 같은 것이 가끔씩 일어나기는 하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학교가 작고 학생 수도 적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은 교사들의 귀에 다 들어오게 된다. 그렇다고 일일이 개입할 필요도 없다. 대부분 일상적인 언쟁의 수준이며, 교사가 개입할 필요도 없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4. 농산어촌 중학교 교육활동의 맥락적 이해

이상에서는 농산어촌 중학교의 교육활동을 세 학교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들 세 학교의 교육활동을 규정하는 요인을 사회적 맥락, 즉 학교, 교사, 가정환경 그리고 지역사회와 관련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4.1. 학교의 규모와 교육과정 운영

학교가 어느 지역에 소재하든 간에 중학교는 법규에 따라 주어진 교육 과정을 운영해야만 한다. 학교별로 자율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행 교육과정은 학교나 학생들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교육활동을 허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기초 학력 미달 학생이 대부분인 학교일지라도 중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으면 안 되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수준별 수업이나 방과 후 수업밖에 없고, 이들은 결국 당해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에 의해서 해결되어야만 한다.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인적 자원의 핵심은 교사라고 할 수 있으며, 교사의 정원은 학교의 규모에 따라 결정된다. 적정 규모의 이상의 학교에는 학생 수에 따라서 적정한 수의 교사가 배정되는 반면, 소규모 학교에는 법규에 따라 최저의 인원만이 배치된다. 그 결과, 적정 규모의 학교는 적정 수의 교사가 확보되어 다양한 교육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소규모학교는 국민공통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교원마저도 확보되지 않는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읍내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도시학교와 같지는 않으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교원의 확보는 가능하다. 즉 이수단위 수가 적은 일부 교과를 제외하고는 교과당 2명 이상의 교사가 배정된다. 따라서 학년 혹은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의 융통성 있는 운영이 가능하다. 반면, 시골중이나 도서중과 같은 학교들의 경우에는 교감이 배치되지 않으며, 교장을 제외하면 7~8명의 교사가 법정 최저정원으로 배치된다. 이러한 인력구조로는 10개에 이르는 국민공통교육과정도 운영할 수 없으며, 학년이나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교사들 역시 3개 학년을 모두 담당해야 하는 것은 물론, 이수단위 수가 많은 교과의 경우에는 매 시간 수업 준비에 따른 교사의 부담

역시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정규교사의 확보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따라야만 하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은 소규모 학교인 시골중이나 도서중학교의 교육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교원 배치의 불균형은 수업의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수업이외의 업무에서도 학교 간 차이를 가져온다. 즉 학교의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학교가 처리해야 하는 기본적인 업무가 존재하고 이를 제한된 숫자의 교사에 의해 처리해야 하는 현실에서 읍내중학교와 같은 적정규모를 갖춘 학교와 시골중이나 도서중학교와 같이 소규모 학교의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들은 교사들에 의해서 수행되는 교육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4.2. 교사의 근무동기와 주거방식

농촌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근무동기는 그들의 교육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농촌 학교에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교사들은 많지 않다. 특히 젊은 교사들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이 포함된 교육청에 소속된 교사들은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농촌지역의 학교에 근무해야만 하는 순환근무제도라는 것이 존재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농촌근무를 유인하는 제도로써 승진가산점 제도도 존재한다. 따라서 농촌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는 본인의 희망에 의해, 혹은 제도적 요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배치되는 경우로 나뉜다. 이처럼 교사들이 어떤 동기로 농촌의 학교에 배정되는가에 따라서 그들의 근무기간이나 근무태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곧 그들이 수행하는 교육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읍지역의 학교는 근무 혹은 통근여건이 좋기 때문에 선호되는 학교들

이다. 실제로 읍지역 학교는 도시로 이동이나 승진의 측면에서는 혜택이 거의 없다. 특별한 연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통근의 편리성 때문에 읍지역 학교를 선택한다. 따라서 이들 교사에게는 통근을 저해하는 행위가 가장 심각한 위협요인이다. 이러한 유형의 교사들은 학교의 주어진 업무는 충실히 수행하지만 추가적인 업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읍내중과 같은 학교는 통근하는 교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과가 끝나면 학교에 남아있는 교사들이 없다. 읍내중의 경우 2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교사들이 인접해있는 대도시에서 통근하고 있다. 따라서 퇴근시간이 되면 카풀을 하는 대부분의 교사들이 일시에 빠져나가면서 학교는 침묵의 공간으로 변한다.

도서 벽지의 학교에는 두 가지 유형의 교사들이 배치된다. 즉 승진을 목적으로 하는 교사나 신규발령을 받는 교사가 주로 배치된다. 교감으로 승진하기를 희망하는 교원들에게 도서 벽지 근무 점수는 필수적인 요인이다. 반면, 승진에 관심이 없는 교사들에게 도서 벽지 역시 유인이 되지 못한다. 도서 벽지는 가산점을 부여하기 때문에 굳이 승진을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도시근교로 옮기는 데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위해 일부러 도서 벽지를 희망하는 교사는 없다. 근무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든 이들에게는 도서지역을 빨리 벗어나는 것이 목표이다. 대부분의 교사들이 2~3년 이내에 도서지역을 떠나며, 1년 만에 떠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교사의 잦은 이동 역시 학부모나 학생의 학교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는 요인 중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근무동기가 어떻든 간에 읍지역의 학교들과 달리 도서 벽지의 학교는 교사들이 현지에 거주할 수밖에 없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도서중의 경우에도 근무하게 된 동기와 관계없이 교사들은 현지에 거주할 수밖에 없다. 주중에는 학교 말고는 시간을 보낼 마땅한 공간이나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교사들은 학교에 남아 있다. 시골중

역시 도서중과 마찬가지로이다.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희망해서 온 경우는 도서중보다 적은 편이다. 이동점수도 있고, 도서 벽지처럼 외부와 차단되지 않다는 이점은 있으나 오래도록 근무할 곳은 아니라는 인식이 교사들에게 자리잡고 있다. 읍내에서 통근하는 교사들도 있고, 부정기적으로 통근하는 교사도 있어서 도서중처럼 모든 교사가 학교를 중심으로 생활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현지에 거주하고 있다. 관사에서의 생활이 불편하거나 답답할 때는 가까운 읍지역이나 도시지역으로 나들이를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도서중과 마찬가지로 학교를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공간적 제약은 도서중이나 시골중 교사들로 하여금 학생지도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하게 만든다. 물론 여기에는 가정환경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학업성취수준도 낮은 농촌 학생들에 대한 연민과 교사로서의 사명감도 작용한다.

좋은 의미에서 포장하면 교사로서의 사명감이겠지만... 사실 인간으로서의 안타까움이고 연민이겠지요...(시골중 교장)

이처럼 읍내중과 같은 읍지역의 비교적 좋은 환경에 근무하는 교사들은 자신의 현실적인 목표에 따라 생활하고 있지만, 시골중이나 도서중과 같은 지역에 배정받은 교사는 자신의 현실적인 목표보다는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그렇다고 시골중이나 도서중의 교사들이 자신의 목표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 사실 그들이 갖는 도시로의 이동이라는 목표는 읍내중처럼 일상적으로 성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흘러야만 성취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 밖의 문제인 것이다.

4.3. 각기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

학생들이 처해있는 가정환경은 농촌지역 학교의 교육활동의 성격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유교문화권에 통용되는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教)에 대한 신념은 농촌지역의 학부모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농촌 지역 학부모들 역시 자녀교육에 대한 욕망을 보다 교육환경이 좋은 지역, 특히 도시지역으로의 이동을 통해 실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중학교 과정은 농촌지역을 벗어나기 위한 학부모의 욕구가 표출되는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초등학교 과정에서 도시로 이주하지만, 직장이나 경제적인 이유로 이동을 미루는 사람들도 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주를 미루던 학부모들에게 중학교 과정은 도시로 이동하기 위한 마지막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면지역이나 도서 벽지의 중학교에는 열악한 교육환경 때문에 자녀교육에 관심이 있는 학부모들은 대부분 도시로 이주하고 남아있지 않다. 따라서 중학교 단계에 있는 학생들의 가정환경은 대부분 열악하다.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을 비롯한 취약계층 학생들의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도 거의 없는 가정이 대부분이다. 실제로 면지역이나 도서벽지의 학교에는 떠날 수 없는 혹은 어쩔 수 없이 밀려들어 온 학생들이 거주하고 있다. 성적이 우수하고 도시학교로 전학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은 거의 없다.

읍지역의 경우는 상황이 약간 다르다. 교육여건은 도시에 비해 떨어지지만, 생업 등과 같은 경제적인 이유로 떠나지 못하고 망설이거나 이주를 보류한 가정들, 도시로 이주할 만큼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지도 않고 경제적으로도 능력이 없는 가정들, 그리고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이나 지원능력이 전혀 없는 가정들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고등학교에 진학하

기 전에 읍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벗어난다. 특히 성적이 우수한 자녀가 있는 경우 이러한 이탈현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읍지역을 빠져나가는 학생들 중 많은 경우가 성적이 우수하고 경제적 지원 능력이 있는 가정의 학생들이기 때문에 남아 있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 그리고 교사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훨씬 크다. 그러나 모두가 도시로 떠날 수는 없다.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는 학생들, 떠나야 한다는 문제의식조차도 갖지 못한 학생들이 섞인 채 읍지역 학교들을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읍내중학교 역시 이러한 이질적인 가정환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특성들이 교육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도시로 이주할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불신, 도시로 떠날 수 없는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무관심 등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학교가 갖는 의미와 역할을 축소시키게 된다. 이런 가운데 떠나고 싶지만 가정형편상 떠날 수 없는 학생들에게만 학교는 유일한 희망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읍내중 학생들의 가정환경은 이질적인 특성을 보이며, 학교의 교육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시골중이나 도서중학교의 경우 유사한 가정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학생들 간에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다. 이처럼 학생들의 가정환경에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 것은 면지역이나 도서벽지의 학교에는 떠날 수 없는 혹은 어쩔 수 없이 밀려들어 온 학생들이 거주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가정환경에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한 학생들의 능력의 차이를 초래할 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학생들의 가정에 존재하는 약간의 경제적인 차이가 반영될 만한 사회 문화적 환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정환경이 교육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별로 없게 되는 것이다.

4.4. 학교의 역할과 의미를 규정하는 지역사회

농산어촌의 교육활동은 학교, 교사와 학생이 처해 있는 상황을 규정하는 지역사회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즉 농산어촌 학교의 교육환경으로서의 지역사회의 특성이 반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의 교육환경으로는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사회 문화적 측면, 특히 도서관, 문화센터, 사교육 기관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읍지역은 인구도 비교적 많은 편이고 비교적 다양한 사회적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비교적 다양한 종류의 문화시설이나 프로그램도 공급되고 있다. 더 나아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사교육기관도 존재한다. 따라서 학생들은 학교 이외의 기관을 통해서도 다양한 유형의 학습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교통이 편리하다는 이점 때문에 읍지역에서는 인접지역들과의 교류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따라서 학생들은 방과 후에도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학교가 지역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은 상대적으로 면지역이나 도서지역에 비해 낮다. 즉 주민이나 학생들은 학교가 아니어도 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기관이 존재한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반면, 면지역이나 도서지역은 사회 문화적으로 낙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외부와의 교류도 차단되어 있다. 특히 도서지역의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 문화적 낙후성은 매우 심각하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협소할 뿐만 아니라 노령화와 빈곤의 심화로 인해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적절한 환경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문화시설이나 프로그램도 없으며, 학생들을 위한 사설강습소나 프로그램도 없다. 특히 교통망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외부와의 교

류는 매우 어렵다. 학생들이나 교사들 역시 방과 후에는 갈 곳이 없다. 그들이 편안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은 학교뿐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 주민들 역시 학교 이외에는 의존할 곳이 없다. 특히 도서지역 같은 경우에는 학교는 지역사회의 유일한 국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에 대한 의존성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학교가 주민들에게 갖는 의미도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특성들은 학교의 교육활동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읍내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대한 지역사회나 학부모의 기대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학교에 대한 압력 역시 낮은 편이다. 학부모들은 학교에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학교에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교사들 역시 교통신이 편리하기 때문에 인접도시에서 통근하고 있으며, 학교 관내에 거주하는 교사의 경우에도 방과 후에는 시간을 보낼 만한 곳이 있기 때문에 굳이 학교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다.

반면, 시골중이나 도서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대한 의존성이 매우 높다. 학부모나 학생의 자녀교육에 대한 욕구나 기대수준이 낮거나 거의 관심이 없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지원능력이 없기 때문에 학교가 제공하는 프로그램 외에는 거의 관심이 없다. 더 나아가 지역사회가 학생들의 그러한 욕구에 부응할 만한 자원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교가 제공하는 교육활동이 유일한 프로그램일 수밖에 없다. 방과 후에는 교사나 학생 모두 갈 곳도 없으며, 참여할 만한 프로그램도 없기 때문에 학교를 중심으로 한 삶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학교에 대한 의존성은 교사의 역할을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통근이 불가능하고 방과 후 여가를 보낼 자원이 부족한 현실에서 교사들로 하여금 학생들의 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농산어촌지역의 학교들이 갖는 특성과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하여 지역특성에 따라 3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해당지역에 소재한 중학교의 교육활동에 대한 참여관찰과 면담을 통한 질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얻어진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농산어촌 중학교의 가능성과 한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업활동의 측면에서 보면 세 학교들은 진도와 관련해서 구별되어 진다. 즉 읍내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진도 나가기에 초점을 둔 교사중심의 수업이 전개되고 있었다. 반면, 면단위지역에 소재한 시골중학교나 도서중학교의 경우에는 진도보다는 학생들에 대한 배려를 중시하는 수업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읍내중이 진도 나가기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는 것은 도시에 비해서는 소규모이지만, 학급당 학생 수가 도시와 차이가 없기 때문에 교사들이 개별적으로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과 관련이 깊다. 학생들 역시 전학을 준비 중인 학생부터 포기한 학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구성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모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역시 학교에 대한 압력이나 기대가 낮다는 점도 이러한 교육활동을 강화하는 요인이 된다.

시골중이나 도서중의 경우에는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교사가 개별학생의 이해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개개 학생의 이해를 고려한 수업을 해야 하는데 시골중이나 도서중 같은 학교의 경우에는 학생들의 학력이 전반적으로 낮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처럼 낮은 수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수업을 하다 보니 학습 진도는 느리고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습능력이 낮다 보니 교과와 진도라는 공식적인 목표보다는 학생들의 동

기유발에 더 많은 강조점을 두는 수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하는 현실은 교사들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수준별 수업의 의미는 읍내중과 시골중 혹은 도서중에서는 각기 다른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다. 진도를 나가는 것에 초점을 맞춘 읍내중에서는 수준별 수업이 효율적이며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는 데 유용한 수단이 되지만, 시골중이나 도서중에서는 진도보다는 학생들의 동기유발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 즉 대부분의 학생들의 성취도가 낮기 때문에 수준별 수업이 의미가 없는 것이다. 특히 적은 학생 수와 교원 정원은 이의 현실적 적용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수업의 의미는 시험에 대해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다. 즉 읍내중에서는 시험의 변별기능이 중시되며, 학생들은 시험에 관심이 있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으로 나뉜다. 반면, 시골중이나 도서중에서는 시험은 평가라는 본래의 목적보다는 학생들의 학습의욕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진다.

둘째, 방과 후 교육활동의 측면에서 보면, 세 학교에서 학생이나 학부모가 부여하는 학교의 의미와 상징성은 각기 다르다. 읍내중학교의 경우 학교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이나 학부모의 참여태도나 의존도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시골중이나 도서중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에 대한 의존성이 높고 학교중심성이 강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읍내중학교에서 학교의 의미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가치부여가 다른 농촌지역보다 낮게 나타나고, 학교에 대한 의존도가 낮은 것은 읍내중학교의 이질적 특성, 교사의 구성, 그리고 지역 사회의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읍내중은 도시로 이주하려는 학생, 떠나고 싶지만 떠나지 못

하는 학생, 학교에 무관심한 학생 등 다양한 인적 구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들 중 이주를 계획하고 있는 학부모들은 개별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욕구를 실현하려 하고, 이러한 욕구를 학교교육보다는 사교육에서 찾고 있다. 따라서 학교에 대한 의존도가 낮을 수밖에 없으며, 학교 구성원들의 각기 다른 요구 수준은 학교에 대한 압력으로 표출되지는 못한다. 교사 역시 통근 교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과시간 외에는 학교의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 지역사회에는 학교가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유사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는 사교육기관이나 각종 기관들이 존재하고, 교통이 편리하여 인접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도 존재하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학부모들도 있다. 따라서 읍내중의 학부모들의 욕구는 파편화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학교에 대한 의존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시골중이나 도서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다르다. 가정의 사회 경제적 지원 능력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능력이나 의욕 역시 낮은 편이다. 또한 지역사회에 학교를 대신할 사교육기관이나 각종 문화 및 교육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학교를 대신할 프로그램을 탐색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욕구를 표출하지도 않는다. 물론 욕구가 있어도 이를 충족시켜줄 수단이 없다. 이런 이유로 학교 중심성은 더욱 강화되는 것이다.

셋째, 생활지도의 측면에서 보면 세 학교는 교사와 학생 간 유대의 속성에서 구별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읍지역 학교들의 경우에는 교사와 학생 간 형식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반면, 시골중이나 도서중 같은 면단위 이하의 소규모 학교는 정적인 유대가 강하고 공동체적 특성이 강하게 드러난다는 점이다.

읍내중학교는 학생 수가 많고 학교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교사들과 학생들 간 개인적인 접촉의 기회가 제한적이다. 뿐만 아니라 학

생들이 이질적인 특성을 갖기 때문에 학생들 간 갈등이나 다양한 부적응 행동들이 표출된다. 특히 학생들이 공유하는 목표들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생활에 대한 대응전략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통근교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학생들과의 접촉의 기회가 제한적이다. 더 나아가 방과 후에도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제반 활동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교사들이나 학생들은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한 후에 파악되는 경우가 흔히 존재한다.

반면, 시골중이나 도서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학교이기 때문에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가 대면적인 접촉에 기반을 둔 정적 유대를 형성하게 되며, 지역사회가 고립되거나 외부와의 교류가 활발하지 않은 폐쇄적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적인 영역이 축소되는 특성을 보이게 된다. 특히 교사들이 학생들과 같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며,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학생이나 교사들은 이 좁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공유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학생들의 생활지도와 관련한 문제점들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산어촌의 학교들은 모두 동일한 것이 아니라 학교의 규모, 지역의 규모, 교사의 거주지, 그리고 가정의 사회 경제적 환경에 의해서 교육활동의 성격이 규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농촌지역 학교의 교육활동은 읍지역과 면단위 및 도서 벽지에서 각기 다른 특성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읍지역 학교들은 학생들의 이동과 학생의 가정환경의 격차 등이 학생들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학생들 간의 학력격차 역시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제기된다. 도시와는 비교되지 않지만 소수에 불과한 사교육기관의 존재는 상대적으로 학교에 대한 의존성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통근교사들이 많다는 지역 특성과 결합되면서 학교교육

의 영향력 약화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학생들의 도시로의 이동을 더욱 심화시킬 개연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도시로의 이동이 심화되면서 학생들에게 나타나는 상대적 박탈감과 좌절감은 심화되고 있다. 더불어 학생 수가 많다 보니 제대로 관리되지 못함으로써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면지역이나 도서벽지의 학교들은 학생의 이동가능성이 별로 없고 학생들 간에 격차를 초래할 외부적 요인이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동질적인 특성을 보이게 된다. 또한 학생들은 매우 소극적이며 도전의식이 취약하다. 특히 사교육기관이 없기 때문에 교육활동과 관련해서는 학교에 대한 의존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한 최소인원은 확보되어 있으나 운영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한 학생들의 전반적 학력수준이 낮기 때문에 정상적인 교육과정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를 보충하려는 교사들의 헌신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즉 교사들이 관사에 거주한다는 이점을 활용하여 학생을 지도하고는 있으나 현행 교육과정 체계로는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이처럼 농촌의 학교들은 소재지의 사회문화적 환경, 학생들의 도시로의 이주가가능성, 사교육의 기회, 학교의 규모, 학생들의 가정환경, 교사의 거주방식과 생애목표 등의 영향을 받으며, 각기 다른 특성과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연구가 3개 학교의 사례를 통한 질적 연구라는 한계를 안고 있기는 하지만, 이 연구의 결과는 향후 농산어촌의 교육정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즉 획일적인 농산어촌 교육정책이 아니라 학교의 특성에 적합한 운영체제와 지원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도시와 유사한 규모와 특성을 갖는 읍지역 학교는 현행 접근 방식이 적합할 수도 있지만, 면이나 도서벽지의 경우에는 다른 접근 방식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농촌 교육 정책의 수립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정 운영체제의 변화가 필요하다.

국민공통교육과정의 획일적 적용으로 인해 기초학력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학생들이 대부분인 농촌지역의 학교들은 이원화된 교육과정의 운영이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현실적으로 기초학력 미달자가 대부분인 면이나 도서벽지의 학교들은 국민공통교육과정을 대신할 대안적인 교육과정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제도적 장치로 농촌형 대안적 교육과정 및 교재의 개발, 학교운영모형의 개발, 대안적 교육과정의 운영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확보 방안, 교원 인사제도의 개편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교원 배정 및 임용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현재와 같이 학생 수에 따른 교원배정 방식으로는 읍지역의 학교는 교육과정 운영에 문제가 없지만, 도서지역이나 면지역의 소규모 학교들은 국민공통교육과정의 운영도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과 학생들의 효율적인 교육지원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복수자격증 소지 교원의 확보 및 우대방안, 학습장애 지도 전문인력의 확보 방안 등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 참고 문헌 ■

- 강만철, 이두휴, 손승남, 오익수, & 송현중. (2002). *농어촌교육 진흥방안 연구*. 목포: 전남교육연구소.
- 고형일, 이두휴, & 정환금. (1995).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교사의 교직문화의 비교 연구. *교육사회학연구*, 5(1), 1-37.
- 나승일, 정철영, 구자역, 박행모, 장호순, 김진구, 마상진, 조단비, & 문세연. (2006). 농촌지역 학부모 및 교사의 도농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혁신 요구분석.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38(2), 117-135.
- 나승일, 정철영, 구자역, 박행모, 장호순, 김진구, 마상진, 조단비, & 문세연. (2007).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농촌지역 유형별 교육혁신 추진과제 탐색.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39(1), 35-57.
- 남궁윤. (2006). 농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 연구. *미래교육연구*, 13(1), 81-115.
- 박철희. (2009). 농산어촌 초등학교 교사·학생의 교육복지 요구 분석. *열린교육연구*, 17(3), 233-260.
- 성주인, & 송미령. (2003). 지역유형 구분과 농촌지역의 유형별 특성. *농촌경제*, 26(2), 1-22.
- 유수경. (2009). 농촌지역 중학생의 사교육 의존요인과 만족도 간의 관계.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동필, 박시현, 김태연, 성주인, 신은정, 김창현, & 김정홍. (2004). *도농 간 소득 및 발전격차의 실태와 원인 분석*.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두휴. (2004). 농어촌지역 학교의 교직문화 연구. *교육사회학연구*, 14(1), 69-99.
- 이두휴. (2011). 도시와 농촌 간 교육양극화 실태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21(2), 121-148.
- 이정선. (2005). 도·농 간 교육격차의 원인과 개선 방향.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37(1), 131-150.
- 이정환. (1987). 한국 농촌지역의 유형구분. *농촌경제*, 10(4), 141-159.
- 이혜숙. (2008). 교실붕괴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중학교 교사들의 인식.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연기. (2006). 한국 농촌교육 정책의 변천과 그 특성 및 과제. *교육행정학연구*,

24(4), 27-49.

- 장문호. (2009). 농촌지역 소규모학교에서의 방과후 공부방의 운영과정과 성과.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효진. (2008). 도시와 농촌 초등학교 상담 실태 비교. 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지웅, 정명채, 이종엽, 진동섭, 구자역, 김혜숙, 최준렬, 정철영, 이정신, & 이승일. (2002). *농어촌교육 발전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과제 2002-14. 농어촌교육발전위원회.
- 최경환, & 마상진. (2009). *농촌학교 활성화 실태와 시사점*.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준렬. (2008). 농산어촌교육 재정지원정책 분석. *교육재정 경제연구*, 17(2), 139-159.
- 한기화. (2009). 도시와 농촌 중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학습된 무기력 비교 연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만길, 박철휘, 이광현, 조영숙, 이두휴, & 김숙이. (2009). *농산어촌 교육복지실태 분석 연구: 초·중학교*.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Dewee, S., & Hammer, P. C. (Eds.) (2000). *Improving Rural School Facilities: Design, Construction, Finance, and Public Support*. Charleston, WV: AEL.
- Gibbs, R. M., Swaim, P. L., & Teixeira, R. (Eds.) (1998). *Rural Education and Training in the New Economy: The Myth of the Rural Skills Gap*. Ames: Iowa State University Press.
- Howley, C.B., & Eckman, J. M. (Eds.) (1997). *Sustainable Small Schools: A Handbook for Rural Communities*. Charleston, WV: AEL.

논문투고일: 2011. 8. 5
 1차수정일: 2011. 9. 17
 게재확정일: 2011. 9. 24